

이색테마 중심의 전래설화 연구

「나무꾼과 선녀설화연구」 「용사상과 한국고전문학연구」

사상은 문학을 비롯하여 다양한 문화예술의 형태로 그 구체적 모습을 드러내기 마련이다. 문학은 또 어떤 방식으로든 그것을 산출한 시대와 지역의 관념 내지 사상을 수용하여 살진 내면을 가꾸어가게 된다.

최근에 나온 「龍사상과 한국고전문학」(이혜화 지음, 깊은샘)과 「나무꾼과 선녀 설화연구」(배원룡 지음, 집문당)는 세계적으로 다양한 변이를 보이며 전승되는 용에 대한 관념과 나무꾼과 선녀 설화에 대한 한국적 양상을 살핀 노작들이어서 주목을 끈다.

「용사상과 한국고전문학」은 유·불·선·무 등 어디에나 비중있게 자리하면서도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했던 용사상을 본격적인 학문 연구의 대상으로 올려놓는 최초의 저작이다. 용사상을 다각도로 조명함으로써 어떤 분야에서도 합리적으로 인용할 수 있는 용사상의 체계화를 이룩하기 위해 저자(고려대 강사, 율곡 교원연수원 재직)는 문헌과 실생활 속에서 등장하거나 쓰이는 용관념을 광범위한 자료수집과 분석을 통해 26가지로 분류한다. 이어 저자는 한국의 용사상의 독자성·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 서양·인도·중국·일본의 용사상들과 '비교문화적 고찰'을 한다. 그 결과 한국의 용사상의 핵심은 '용신앙'에 있으며, 용신앙 중에서도 농경을 배경으로 한 '水雨神 관념'과 '除災招福 관념'이 두드러짐을 지적한다.

이 책의 또 다른 특징은 한국고전문학 전 장르를 '용사상 체계'라는 그물을 써서 장르간·시대간의 유기적 통찰까지 염두에 두고 문학작품을 점검했다는 점이다. 향가를 비롯해

문학은 어떤 식으로든지

그를 산출한 시대와 지역의

관념 내지 사상을 수용하여 살진

내면을 가꾼다. 최근 상재된

「龍사상과 한국고전문학」

「나무꾼과 선녀 설화 연구」는

세계적으로 다양하게 변이·전승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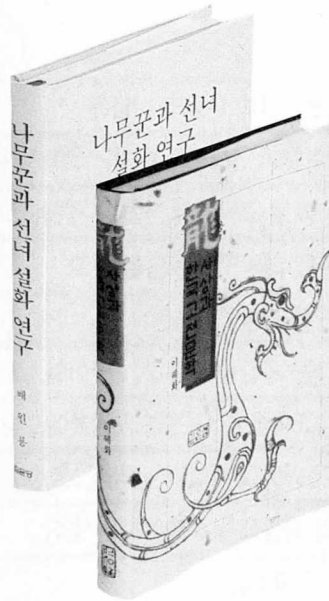
용에 대한 관념과 나무꾼과 선녀

설화에 대한 한국적 양상을 깊이있게

살핀 노작들이어서 주목을 끈다.

고대시가·고려가요·약장·시조·가사 및 한시에 이르기까지 시가문학 전반은 물론, 용사상이 가장 심도있게 수용된 것으로 평가되는 서사문학에 대해 심층적으로 접근한다. 특히 「바리공주」 「신중도풀이」 등 제주도 무가와 「동래들놀이」 「통영오광대」 「꼭두각시놀이」 등 극문학에 대한 용사상적 연구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이자 희유한 일"로 평가받고 있다.

저자는 결론에서 "용사상이 유사 이래 한국인의 생활과 사고에서 잠시도 떠날 수 없었다면, 한국인의 생활과 사고를 수용하여 표현하는 한국문학 속에 이 사상이 소외될 수 없음도 당연하거나, 거의가 장르를 불문하고 모든 한국문학 속에서, 혹은 소재로서 혹은 문학사상으로서 크나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밝힌다.



「나무꾼과 선녀 설화연구」는 하나의 단일설화형을 대상으로 종합적 고찰을 시도한 최초의 '작품론'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호주를 제외한 전세계에 퍼져 있는 '나무꾼과 선녀' 이야기는 우리나라에서만 140여話が 조사되고됐을 만큼 매우 친숙한 설화 유형. 저자의 성균관대학교 박사논문을 보완한 이 책은 '나무꾼과 선녀' 설화의 유형분류, 유형별 전승양상, 구조분석과 그 의미, 현대적 수용과 변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그 결과 '선녀 승천형' '나무꾼 승천형' '나무꾼 천상 시련 극복형' '나무꾼 지상 회귀형' '나무꾼 시신 승천형' '나무꾼과 선녀 동반 하강형'의 여섯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결핍-기만-기만의 성공-결핍의 제거-금기-위반-분리-결합과 같은 단락소의 연쇄로 돼 있다고 그 구조를 파악한다. 이

러한 구조분석을 바탕으로 "천상의 신적 존재인 선녀와 지상의 속된 존재인 나무꾼이 결혼하는 神聖婚 설화"라는 내면적 의미를 끄집어낸다. 저자는 신화의 주인공이 '天男地女型'의 신성혼임에 반해 이 설화의 그것은 '天女地男型'임을 들어, 이같은 "비신화적 공간 배치"가 나무꾼과 선녀 설화의 다양한 변이를 파생시키는 주된 요인임을 지적한다.

저자는 제7장에서 이 설화를 수용한 현대문학작품의 분석을 통해 설화의 현대적 변용의 양상을 고찰한다. 배원룡씨의 시 「선녀에게 부치는 편지」, 조해일·심상대·김지원씨의 소설 「雨曜日」 「나무꾼의 뜻」 「나무꾼과 선녀」, 그리고 오영진씨의 시나리오 「한네의 승천」이 그 대상작품들이다.

저자는 "나무꾼과 선녀 설화는 행복추구라는 인간의 공동심성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개인의 다양한 의식을 여러 유형으로 수렴하여 오늘날에도 생성·변화하는 유기체적인 구비문학으로서 문학성이 뛰어난 작품임이 확인되었다"고 결론짓는다.

—김중식 기자

지·성·인·을·위·한·교·향·곡

신간

어느 천사가 내 노래에 귀 기울이리

호리 히데이코지음 · 김시일 엮음

대림기획
도서출판

서울 을지로 37가 286
Tel : (02)268-4902
FAX : (02)277-6946



잔인한 계절 4월에
찬란한 5월의 봄을 위하여
메마른 폐로 한껏 큰 숨을 들이쉬어 본다

우리 인생은 살 만한 가치가 있는가?

내가 선택한 나의 길, 나의 삶을 예찬하고
젊은 날의 사랑을 노래한다
인생이라는 향기나는 우물에서
뼈 속까지 시원히 적셔줄 한 동이의 맑은 물

최선을 다하는 시간만을 위하여
나의 심장은 뛰고 있고 나의 몸은 열려 있으니
어느 천사가 내 노래에 귀 기울이지 않으리...